

강화군, 갑질 · 부정 없는 공직문화 실현

공직자 대상 ‘2024년 강화군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2024년 강화군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군이 지난 3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직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강화군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과 이해 충돌방지법, 직무상 갑질을 중심으로 한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어려운

법령을 퀴즈로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돼 직원들에게 유익하고 이해하기 쉬운 교육으로 마련됐다. 특히, 부정 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시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방안도 제공했다.

윤도영 군수 권한대행은 “군정을 수행하면서 얻은 군민들의 신뢰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모든 공직자가 청렴을 생활화하고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평소에도 부서장 및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각종 청렴 시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군, 집중호우 및 강풍 대비 농작물 사전 관리 당부

강화군이 올여름 집중호우와 강풍 등의 기상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및 시설물 사전 관리 현장 지도에 나섰다.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 잡초 제거 등 배수시설을 정비해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쓰러질 우려가 있는 작물은 개별 지주를 보강하거나 줄 지주를 추가 설치하고, 비가 오기 전·후로 작목에 맞는 병해충 약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더불어, 침수 발생 시에는 최대한 빨리 물을 빼고, 작물에 묻은 흙과 오물을 제거한 뒤 병해충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자는 “올 여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 예년보다 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농업인들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목별 예방과 사후관리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강화군, 집중호우 및 강풍 대비 농작물 사전 관리

강화군, 2024년도 역점사업 상반기 추진 현황 점검

강화군이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024년도 역점사업 상반기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윤도영 군수권한대행 주재로 각 부서장,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핵심사업의 진행 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보고회에서 현안으로 다뤄진 주요 역점사업으로는 ▲강화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외포항 관광명소화 사업 ▲फल시장 노외주차장 조성 ▲어촌신활력 증진 ▲주문연도교 건설 ▲길상공원 조성 ▲로컬 팜 빌리지 조성 등 상반기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추진현황으로 다뤄지고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군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군정 기조를 차질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5일 국회를 방문해 배준영 국회의원에 지역 현황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제2회 강화군수기 17개 시·도 대표 궁도대회 성료



강화군, 제2회 강화군수기 17개 시·도 대표 궁도대회

강화군이 11일, 강화정에서 개최한 ‘제2회 강화군수기 17개 시·도 대표 궁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강화군이 주최하고 강화군체육회와 강화군궁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궁도인 간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전 11시에 진행된 개회식은 개식통고 및 국민의례, 개회 선언, 내빈 소개, 궁도9계훈 실천 요강, 대회사 및 축사, 우승기 반환 및 선수대표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본 경기가 펼쳐졌다.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제2회를 맞이한 강화군수기 전국 궁도대회 개최를 축하드린다”며, “국궁은 심신을 수련하는 우리 고유의

스포츠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궁도인들이 강화에서 멋진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양재형 강화군궁도협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궁도의 역사가 깊은 강화를 찾아주신 시·도 대표 공사 여러분 모두를 환영한다”며, “좋은 성적과 함께 강화의 맛과 멋이 전국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결과 단체전은 광주광역시 대표 선수단이 우승을 차지했고, 경기도 대표 선수단이 준우승, 인천광역시 대표 선수단이 3위, 충청북도 대표 선수단이 4위를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광주 대표 선수단 김연수 선수 1위, 경남 대표 선수단 김성조 선수 2위, 인천 대표 선수단 최선호 선수가 3위의 영예를 안았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월선포~상용간 해안도로 ‘조기 개통’



강화군, 월선포~상용간 해안도로 조기 개통

강화군이 교통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월선포~상용간 해안도로 개설 공사’를 완료하고 8일 개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월선포~상용간 해안도로는 교동면 상용리에서 봉소리까지 총연장

2.17km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총사업비 93억 원이 투입됐다.

군은 지난 2021년 3월 착공을 시작해 올해 6월까지 총 39개월에 걸쳐 차질 없이 공사를 완공했고, 당초 준공 예정인 2025년 3월보다 9개월가량 공기를 크게 단축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곳은 접경지역인 교동 동서 평화 도로의 교두보 지역으로, 해안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월선포~교동대교 구간을 5분 이내에 다닐 수 있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고 해안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특색있는 관광자원 인프라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총사업비 123억 원을 투입해 강화읍 관청리에서 옥림리 일원 1.22km를 연결하는 ‘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 도시계획도로’를 지난 1일 개통해 원도심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앞으로 강화 해안 순환도로 4공구의 잔여 구간과 5공구 조기 완공 추진뿐만 아니라 숙원사업인 계양~강화 고속도로, 영종~신도~강화 연륙교, 마송~강화간 국도 확장 사업 등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 선언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



김 세 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세환(59)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금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세환 전 총장은 "강화 출생으로, 강화군청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까지 역임했으며, 5형제 중 맏아들로 태어나 지금도 4대가 함께 살고 있는 강화는 자신에게 운명과의 같은 곳"이라며, "35년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고위급 관료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강화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또한 "한반도의 중심이자 역사적으로 중요한 옛 강화도의 영광을 재현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새 시대를 위한 변화와 도약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며, 유능한 일꾼이 등장해야 하고, 새로운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5년간의 국가행정과 지방행정 경험을 통해 축적해온 역량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사람, 그 어떤 후보도 가지지 못한 강점을 오롯이 강화군민을 위해 발휘하고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세환 전 총장은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선언과 함께 과거 「자녀 특혜 제공 의혹 보도」로 생긴 오해에 대해서도 아들은 공무원 시험으로 강화군에 임용되어 몇 년간 근무한 후, 선거위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 응시해 정당하게 임용되었으며, 승진도 오히려 늦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총장은 「특혜 제공 의혹 보도」 자체에 대해서도 수사결과 "혐의없음"과 국민권익위의 4개월간의 조사결과로 이미 명확히 결론이 난 부분이라며,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일을 통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 무대에서 차관·장관급을 역임하며 쌓아온 국회와 정부의 폭넓은 인맥을 통해 막대한 예산 확보로 강화군을 번영의 길로 이끌겠다"고 강조하며, "강화에 꼭 필요한 것,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유능하고 믿음직한 군수로 인정받을 것이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군민과 소통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말하고, 이번 출마를 통해 "모두가 잘사는, 누구나 살고 싶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행복한 강화를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면서, "모두가 기억하는 위대한 강화, 위대한 군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세환

KIM SE HWAN

나이: 59세

학력: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2020~20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2018~2020)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2018~20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20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2017)
-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20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2016)

가족관계

출신지: 강화읍

- 모친 윤어자(85세) 외 5명제
- 부인 임미섭(55세) 외 자녀 1남 1녀

김순호 전 강화 부군수



김 순 호

전 강화 부군수

김순호(64) 전 강화 부군수가 10월 16일 실시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순호 전 부군수는 "수도권 타 지역은 날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작금의 강화군 위상은 소멸 위기 지자체로 매우 참담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낙후된 강화를 발전시키고자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강화군민에게 기부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다"고 출마를 결심한 동기를 밝혔다.

"타 자치단체와의 큰 격차는 군정을 이끌어가는 군수의 정치, 행정적 혁신역량과 규제개혁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판단된다"며, "도시공학박사로서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중점된 규제를 철폐하는 등 획기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군민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성장관리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바닥 경기 활성화, 농·수·축산 분야 개혁 ▲군민의 민원은 바로 해결해 특혜 소지를 없애고 속도감 있는 군정으로 탈바꿈 ▲투자유치 활성화 및 국·시비 보조금 재원 확보를 중점시책으로 추진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로 재직하면서 얻은 전반적 군정 경험과 지역 곳곳의 현장방문을 바탕으로 강화지역과 군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며, "군민들의 열망을 담아 위기의 강화군을 구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순호 전 부군수는 강화읍 관청리 궁골태생으로 강화초·덕신중·인천고를 졸업했으며, 미국 오리건주 주립대학교 지역계획 석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9년 강화군청 근무를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인천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강화군 부군수, 인천광역시청 경제산업국장, 미추홀구 부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전) 강화부군수

김순호

나이: 64세

출신지: 강화읍 궁골

학력

- 강화초등학교 63회
- 약산중학교 4회
- 인천고등학교 77회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공학박사
- 미국 오리건주립대학교 지역계획석사

경력

- 강화군청 일사
-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인천광역시청 도시행정팀장
- 인천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
- 산업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팀장
- 인천광역시청 경제산업국장

가족관계

- 모친 김정기(89세)
- 부인 구유경(63세) 외 자녀 2남

* 본 내용은 각 후보의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위한 출사표로 신문사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립니다.

배충원 강화군의회 의장, “후반기 운영 방향은 소통·협치”

배충원 의장, “군민과의 소통 · 집행부와의 협치로 강화군 발전 도모할 것!”

1. 배충원 의장님, 후반기 의장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후반기 의회 의정방향과 가장 중점을 두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배충원 강화군의회 의장입니다. 먼저, 저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군민 여러분의 뜻을 받아 들여 민심을 존중하고 의원간 소통하며 집행부와 협치하여 강화군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뜻을 모아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만큼, 함께 힘을 모아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후반기 강화군의회 운영의 핵심 방향은 소통과 협치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드릴 것이며, 의원님들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일하는 의회의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며, 특히 하반기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미 의정활동의 첫 시작으로 노인회·교육청·경찰서·소방서·금융기관·종교단체·읍면사무소뿐만 아니라 국회도 방문하여 지역현안을 듣고 상호협조체계 구축을 약속하였습니다.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의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이며 후반기 의정과제와 정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에 ‘군민’이 있는만큼, 항상 군민과 소통하고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군민의 생각이 더 많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강화군 집행부와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지역현안 해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만큼이나 협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군정 운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때 서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협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꾸준한 소통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 하시다보면 작은 실수도 하고 성과가 적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희망의 강화, 행복한 강화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이루고 싶은 것, 제가 생각하는 강화군의 가장 큰 현안으로는 강화군의 인구감소문제입니다. 이미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천에서는 강화와 옹진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



고, 우리군은 노인인구는 늘고 젊은 인구는 감소하는 구조이다보니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강화의 미래는 어둡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강화군 인구소멸 대응 TF팀을 구축하여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보다정밀하게 진단하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직장·관광 등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관광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종~강화간 대교 등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며 인천시장의 공약 사항인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배준영 국회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우리 군에 주말농장과 별장생활의 활성화를 가져오게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7만 강화군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강화군의회 의장으로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여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이 우리 의회를 자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군민과 강화군의회가 소통이 잘 안된다고 군민들이 불멘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주민과의 소통에 대한 한말씀 하신다면?

저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군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군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늘 고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개개인의 시간적·공간적으로 한정된 상황속에서 많은 민원 접수와 군 사업을 일일이 점검하려다 보니 만남이 어렵거나 가끔씩 연락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나 접근이 어

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원들은 결코 군민의 목소리를 안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군민의 민원을 처리중이라 즉시 연락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의원들 모두는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강화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늘 고심하고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 군의회는 더 듣고 경청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는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장·해병전우회 강화군지회장·라이온스클럽 강화군지회장·경인북부수협 상임이사·삼랑고 총동문회장·군노인회 군체육회 군경영자협의회 서강화농협 임원 등을 역임했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충을 앞장서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이 정치의 주인이며 정책의 결정권자라는 생각으로 민의를 대변함에 있어서는 소통과 초당적 협치를 통하여 7만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좋은 강화 만들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3. 강화군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강화군의 가장 시급한 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정책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고 젊은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처방전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인구감소 대응 전략 TF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윤도영 강화군수 권행대행실을 방문하여 함께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을 갖추고 있는 만큼 지역의 강점을 살린 사업과 정책으로 지역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농·어업인과 자영업자의 경

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에 특화된 관광산업과 새로운 성장을 이끄는 신산업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 강화섬쌀의 고급화 및 고소득 작물지원 육성 ▶ 농번기 인력난 해소 ▶ 어로한계선 확장을 통한 소득증대 ▶ 기업체 인력난 해소방안 ▶ 사회 초년생의 창업지원 ▶ 토지용도지구 완화 ▶ 산림자원 소득 현실화 ▶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규제 완화 ▶ 체류형 관광산업 유치를 통한 요식업·숙박업 소득 증대 ▶ 수도권 연결 광역교통망 신설 추진 ▶ 석모도 온천자원 활성화 ▶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개발 ▶ 자녀돌봄 등 교육 경쟁력 강화 ▶ 도서주민 운송비 절감 ▶ 출산 육아 정책 강화 ▶ 군민(어르신) 의료 지원 등 우리 지역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희망의 강화, 행복한 강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랜시간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왔고, 의장으로서 강화군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의회의 역할은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에,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군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것이고, 그러한 군의회의 활동으로 인해 군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되어 군민으로부터 칭찬받는 의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4. 끝으로 강화군민 여러분께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말씀은 ?

존경하는 7만 강화군민 여러분!
제9대 후반기 강화군의회의가 첫발을 내딛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7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군의회는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활동하겠습니다. 작은 민원이라

도 작은 목소리라도 우리 군의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작은 목소리가 모아졌을 때 강화군이 발전하고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제9대 강화군의회의 의원 모두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강화가 모든 분야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먼저 다가가 실천하며,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의정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후반기 의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소통과 화합·배려와 존중의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군의회의 배충원 의장·한승희 부의장, 국회 방문 지역 현안 건의



강화군의회의, 국회 방문

강화군의의회가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된 배충원 의장과 한승희 부의장은 지난 8일 배준영 국회의원을 방문해 강화군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3000번 버스 노선 개선 ▲강화~계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 조기 착공 ▲스마트 통합 플랫폼, CCTV 관제센터 등의 신규 국비사업 확보에 관한 것으로, 배준영 국회의원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와 군의원, 군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건의된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배충원 의장은 “이번 국회 방문은 강화군의 주요 현안과 각종 민원 사항을 설명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중앙부처, 인천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군민 숙원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제9대 후반기
강화군의의회 개원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강화군의의회
GANGHWA-GUN COUNCIL

강화군, '제35회 왕골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매년 7월 열리는 강화군 대표 공예대회에서 특산품인 왕골 공예품의 우수성 널리 알려



2023 제34회 강화군 왕골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작품_최우수

강화군이 오는 19일까지 '제35회 강화군 왕골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35회를 맞는 강화군 왕골 공예품 경진대회는 강화군 특산품인 왕골 공예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7월에 개최되는 강화군 대표 공예대회이다.

강화군에 주소를 둔 왕골 공예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군은 작품의 품질수준, 상품성 및 전통 제작 방식 등을 심사해 최종 8인의 입상자를 가려내고, 오는 25일 심사를 진행해 심사 종료 다음 날에 강화군 홈페이지를 통해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상 작품 8점은 오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송해면에 위치한 화문석문 화관에 전시되며,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 왕골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의 전통공예산업인 왕골공예의 맥을 잇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왕골 공예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2023 제34회 강화군 왕골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작품_우수



2023 제34회 강화군 왕골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작품_우수



2023 제34회 강화군 왕골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작품_장려

2차 LED 보안등 설치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강화군, 강화의 밤거리에 안심 LED 보안등 추가 설치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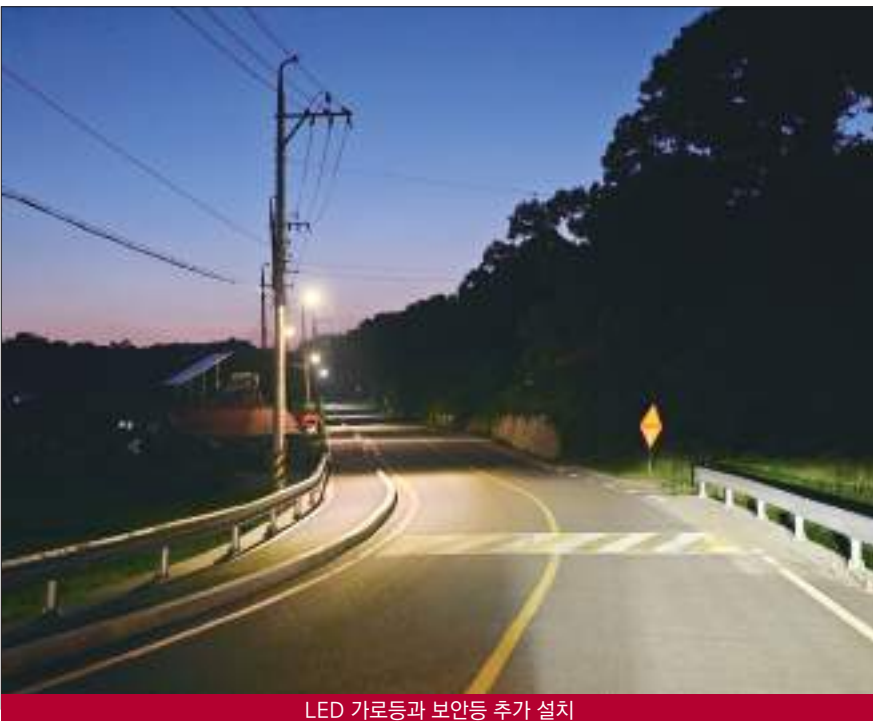
강화군이 야간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2차 LED 보안등 설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지마 폭행 사건 등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역점사업으로, 군은 이번에 약 1,300개소에 LED 보안등을 추가 설치했다.

지난해 설치한 122개소를 포함하면 현재 관내에 설치된 총 가로등은 6,700개소고 보안등은 12,706개소로, 군은 앞으로도 군민 안전을 위한 가로등과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보안등 설치를 통해 범죄 예방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야간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요 도로와 마을로 통하는 이면도로, 농로, 산책로 등에 LED 보안등을 설치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조명시설 설치를 통해 문지마 폭행 등의 범죄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LED 가로등과 보안등 추가 설치

강화군 남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2024 인천시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강화군 남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2024 인천시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강화군은 지난 27일, 강화군 남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상배)이 「2024 인천시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 지역 특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4 인천시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는 인천시가 도시재생사

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주민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주최하는 대회로, 지역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강화 남산마을은 지난 2021년부터 주민참여 경진대회에 참가해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남산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주거복지, 도시 활력, 자립 기반, 사회통합을 목표로,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지원하며, 도시재생 거점 공간을 활용해 주민 소득 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 카페, 마을식당, 도시락 및 반찬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안정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로 인정돼 타 지역에서의 견학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도시지역은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저성장 고령화로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며, “이런 가운데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은 지속적인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삼거2지구·덕하1지구·송뢰1지구 대상 사업 추진

강화군이 지난 8일~9일 이틀간, 2025년도 사업예정지구인 하점면 삼거2지구, 양사면 덕하1지구, 송해면 송뢰1지구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제작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를 정밀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군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 추진 절차, 기대효과 및 사업 완료 후 발생하는 조정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사업지구 지정의 필수 요건인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군은 사업지구 지정신청 절차를 거쳐 국비를 확보한 후, 군민의 부담 없이 국가 예산으로 측량비 3억 원을 지원받아 2026년 6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3개 지구 1,423필지 116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강화군,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강화군, 장마철 대비 재난취약시설 현장점검 실시



강화군, 장마철대비 취약시설 현장점검

강화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군 관계자들이 함께 해누리공원, 고려교, 하점산업단지, 국공장 사면 등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중점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군은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2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윤도영 군수 권한대행은 점검을 통해 “철저한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위험 요인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 달라”며 “도로나 시설물의 균열, 절개지 등 붕괴·축대나 옹벽의 배부름 현상 등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읍·면사무소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의회 배충원 의장, 해양수산부 방문해 지역 현안 건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및 어촌어항과 방문



배충원 의장, 해양수산부 방문해 군 해양산업 주요 현안 업무협의

강화군의회 배충원 의장이 지난 10일 군 해양산업의 장기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방문했다. 지난 8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을 방문한 데 이

은 것이다.

배충원 의장과 조영진 강화군 경제교통과장, 이영태 해양수산협력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및 어촌어항과를 방문해 강화군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항은 ▲국고여객선(강화훼리호) 대체건조 및 증톤 요청 ▲국가어항(어류정항) 유지준설 및 종합정비, 실시설계 용역추진 등이다.

배충원 의장은 “국비 확보는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견인하는 가문의 단비”라면서 “군 의장으로서 현안 사업뿐만 아니라 강화군이 수도권 최고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배충원 의장은 강화섬쌀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며 강화 농·특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 최벽하 기자

3000번 광역버스 이관 관련 강화군민 불편 개선 추진 계획

2024. 7. 10.(수), 강화터미널 현장설명회 시

이관개요 3000번 직행좌석 버스의 기점이 경기도 내 시·군이 아닌 강화군으로 법령 부적합 문제 제기 이관 결정(여객운수법 시행령 개정, '22.1.28)

구분	관할 관청	기점	주요 경유지	종점	인가 거리(km)	인 가 사 항		
						인가 대수(대)	인가 횟수(회)	배차 간격(분)
기존(23대)	대광위(김포시)	강화터미널	강화병원, 유성아파트, 옹진주택, 현대아파트, 김포대, 마송, 장기, 사우, 풍무, 고촌, 개화역, 발산역, 강서구청, 합정역, 홍대입구역	신촌역	105.1(왕복)	23	90	9~17
변경(8대)	인천시	강화터미널	변동없음	신촌역	105.1(왕복)	8	32	30~36

- 추진 경과**
- ◆ 2024. 5.: 계통분리 운행 결정 통보(대광위 → 인천시, 경기도, 김포시)
 - ◆ 2024. 6. 19.: 노선조정(급행화) 관련 사전협의(인천시 → 경기도, 서울시)
⇒ 인천시는 강화군 의견을 수렴, 김포구간 정류소 축소 및 직선화하는 급행노선안을 마련, 관계기관(서울시, 경기도, 김포시) 협의 추진
 - ◆ 2024. 6. 25.~6. 26.: 부동의 회신(경기도: 김포구간 내 노선조정 불가, 서울시: 종점(신촌→당산역) 조정 불가)
 - ◆ 2024. 7. 1.: 계통분리 이관(인천시 8대, 김포시 15대), 당초 노선으로 운행 중

강화군민 불편 사항 ◆ 감차(23대→8대) 운행으로 배차간격(최대 17분→36분) 이완 탑승대기 등 불편 초래

- 개선 계획**
- ◆ (우선 시행) 김포시 구간 정류소 조정(24개→11개)으로 운행 시간 단축(최대: 6.5분)
 - 김포대 입구→김포외고 구간 직선화, 주요 환승지 및 승하차 정류소 위주 조정
 - 운행 시간 단축에 따른 배차 시간 조정 등 세부 사항은 운행 모니터링 후 조치
 - ※ '24. 7. 5.(금) 김포시 노선 조정 사전 협의결과 정류소 조정에 기본적 동의
 - ◆ (추가 검토) 市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연계 추가 개선 방안 추진
 - 김포한강로 이용 급행화 노선 신설(최소 2대): 서울 접근성 개선

- 향후 계획**
- ◆ 김포시 의견('24.7.11, 목) 수렴 확정 후 現 운행 8대 정류소 조정 조치
 - ◆ 급행화 노선 신설*, 차량 추가 증차 등 불편개선 추가 대책 추진
 - * 기존 48번 국도이용 現 운행 8대 노선조정 개선효과, 김포한강로 이용시 차량정체 등 종합적 고려

인천강화교육지원청, 중학생 사회정서역량 강화 리더십 체험 캠프 운영



사회정서역량 강화 리더십 체험 캠프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은 13일 강화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강화 지역 중학생 35명을 대상으로 ‘2024 중학생 사회정서역량 강화 리더십 체험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이 소통과 경청을 기반으로 자기와 타인을 이해

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참가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전에는 ‘소통과 경청의 방향성’, ‘리더가 지녀야 할 사회정서역량’을 주제로 강의와 모둠 활동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 알기’, ‘가치를 담은 실천 선언문 만들기’, ‘함께 생각 발전시키기’ 등의 나눔과 공유활동이 운영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며 “신체활동과 표현 활동이 많아 재미있었고 다른 중학교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연결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사회정서역량은 삶의 힘이 되는 중요한 역량”이라며, “인천교육의 역점사업인 사회정서학습이 의미 있게 학생들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정진기자

정류소 : 총 42개소→28개소

연번	행정구역	정류소명	정류소ID(상행/하행)	비고
1	인천 강화군	강화터미널(기점)	43096	인천 5개
2		강화병원	43089 / 43088	
3		유성아파트	43087 / 43086	
4		용진주택	43085 / 43084	
5		현대아파트	43083 / 43082	
6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학입구	35549 / 35543	김포 25개→11개
7		마송우회도로사거리	35289 / 35726	
8		장기본동행정복지센터	35204 / 35206	
9		한강로사거리	35291 / 35295	
10		장기사거리·수정마을	35211 / 35210	
11		걸포북변역·국민연금공단	35560 / 35610	
12		걸포사거리·김포우리병원	35657 / 35561	
13		북변환승센터·구터미널	35531 / 35532	
14		사우역·김포고	35246 / 35247	
15		풍무역	35271 / 35272	
16		고촌역	35277 / 35278	
17	서울시	개화역1번출구·개화검문소	16170 / 16169	서울 12개
18		송정역(중)	16014 / 16015	
19		마곡역(중)	16019 / 16018	
20		마곡동로사거리(중)	16022 / 16021	
21		발산역(중)	16017 / 16013	
22		강서구청사거리·서울디지털대학교(중)	16008 / 16007	
23		염창역·서울도시가스(중)	16002 / 16001	
24		합정역(중)	14011 / 14012	
25		홍대입구역(중)	14015 / 14016	
26		동교동삼거리(중)	14061 / 13019	
27		신촌오거리·현대백화점(중)	14062 / 13259	
28		신촌오거리·2호선신촌역(중)	14063	

정류소 : 총 42개소→21개소

연번	행정구역	정류소명	정류소ID(상행/하행)	비고
1	인천 강화군	강화터미널(기점)	43096	인천 5개
2		강화병원	43089 / 43088	
3		유성아파트	43087 / 43086	
4		용진주택	43085 / 43084	
5		현대아파트	43083 / 43082	
6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학입구	35549 / 35543	김포 25개→4개
7		마송우회도로사거리	35289 / 35726	
8		장기본동행정복지센터	35204 / 35206	
9	서울시	운양역	35650 / 35649	서울 12개
10		개화역1번출구·개화검문소	16170 / 16169	
11		송정역(중)	16014 / 16015	
12		마곡역(중)	16019 / 16018	
13		마곡동로사거리(중)	16022 / 16021	
14		발산역(중)	16017 / 16013	
15		강서구청사거리·서울디지털대학교(중)	16008 / 16007	
16		염창역·서울도시가스(중)	16002 / 16001	
17		합정역(중)	14011 / 14012	
18		홍대입구역(중)	14015 / 14016	
19		동교동삼거리(중)	14061 / 13019	
20		신촌오거리·현대백화점(중)	14062 / 13259	
21		신촌오거리·2호선신촌역(중)	14063	

3000번 정류소 조정 및 증차에 따른 운행시간 비교(추계)

구분	운행거리(km)	운행대수(대)	운행시간(분)	운행간격(분)	운행횟수(회)	비고
현행	105.1	8	264	30~36	32	·주행시간 229분 ·주행속도 27.5km
정류소 조정 시	102.3	8	244	27~34	34	·주행시간 209분 ·주행속도 29.4km
정류소 조정 후 증차 (2대 기준)	102.3	10	244	21~27	43	·주행시간 209분 ·주행속도 29.4km

※ 1. 운행시간 = 주행시간 + 운수
종사자 휴게시간(1회당: 35분)
2. 2024년 인천 시내버스 평균
배차 간격 : 22.5분

기고

이건창 생가, 정말 생가일까요?

이경수



이시원 묘와 이건창 생가

소송 걸린 이건창 생가

‘어? 이런 일이 있었네.’

무심히 기사를 읽다가 놀랐습니다. 이건창 생가가 소송에 휘말린 겁니다. 생가 주변에 땅을 가진 어떤 분이 이건창 생가를 ‘인천광역시 기념물’에서 해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소송인은 이건창 생가가 엉터리로 복원됐고, 더구나 이건창이 태어난 곳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 이건창 생가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다,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소송인이 항소했습니다.(연합뉴스, 2024.06.28. 손현규 기자)

이건창 집안의 청빈함을 보여주려는 의미였을 테지만, 아닌 게 아니라, 복원된 이건창 생가는 너무 소박합니다. 초가는 그렇다 쳐도 규모가 지나치게 작습니다. 할아버지 이시원, 아버지 이상학, 그리고 이건창, 이렇게 삼대 가족이 살던 집 이라는데요.

생가(生家)의 본디 뜻은 ‘태어난 집’입니다. 이건창 생가는 정말 그가 태어난 집일까요?

개성인가, 강화인가

개성에서 태어났다는 게 통설입니다만, 저는 화도면 사기리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여깁니다. ‘이건창 생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짚어 봅니다.

조부 이시원(李是遠, 1790~1866)이 개성유수로 가게 되자, 이건창의 어머니가 이시원을 따라갔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대신 시아버지를 봉양하려고 나선 겁니다. 물론 아들 이상학도 강

화와 개성을 오갔겠죠. 그때 거기 개성에서 이건창을 낳았다는 것이 개성 출생설입니다.

황현이 《매천야록》에, 이시원이 “개성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자신이 머무는 관아에서 건창을 낳았으므로 그의 아명을 송열(松悅)이라”고 했다고 썼습니다. 이 기록이 개성 출생설의 근거로 말해집니다. 이건창의 어릴 때 이름이 ‘송도에서 얻은 기쁨’ 정도로 해석되는 ‘송열’이기에 개성 출생설이 설득력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앞에 소개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선생의 동생인 이견승이 편찬한 집안 사료에는 강화도가 출생지로 기재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아직 ‘이견승이 편찬한 집안 사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건창이 강화에서 출생했을 것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비변사등록》에 따르면, 이시원이 개성유수에 임명된 것이 1850년(철종 1) 4월 26일입니다. 임기를 마치고 총관에 임명된 것은 1852년(철종 3) 2월 3일입니다. 같은 날 철종은 새 개성유수로 김시연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시원이 개성유수로 근무한 기간은 임면일 기준으로 1850년 4월~1852년 2월입니다.

임기 끝난 이시원이 개성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새 개성유수가 왔으니 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승정원일기》는 철종이 1852년(철종 3) 3월 30일에 이시원을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 임명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동지경연사’는 경연에서 임금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수시로 임꺽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건창은 1852년(철종 3) 5월 26일에 태어났

습니다. 조부 이시원이 개성유수직을 마치고 거의 4개월 뒤입니다. 동지경연사가 되고 대략 2개월 지나서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이건창이 개성에서 태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개성에서 그것도 개성유수부 관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명이 송열(松悅)이라는데?”

저는 이건창이 송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임태’된 것으로 여깁니다. 며느리가 임신하자 이시원이 기뻐하며 뺏속 손주를 ‘송열’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일종의 태명으로요.

아무래도 이건창이 개성에서 태어났다는 《매천야록》 기록은 사실이 아닐 것 같습니다. 황현이 뭔가 착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미당 현판은

이건창 생가에 가면, 明美堂(명미당)이라고 새긴 현판을 보게 됩니다. 명미당은 이건창의 당호(堂號)입니다. 당호를 명미당으로 정한 이유를 이건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정공(조부 이시원)께서 장차 운명하시면서 유서를 남길 적에 정자(程子)의 ‘바탕이 아름다우나 명철함을 극진히 하다[質美明盡]’라는 말을 인용해 <나를> 격려했던 까닭에 明美堂으로 당호를 내걸었다.”

명미당 현판에 ‘梅泉(매천)’이라는 작은 글씨도 보입니다. 매천은 황현의 호입니다. 황현은 이건창과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아, 황현이 쓴 거로구나.’ 제가 여러 해 전에 낸 책, 《강화도史》에 현판 ‘明美堂’이 황현의 글씨라고 적었습니다.



명미당 현판



이건창 생가

그런데 틀렸습니다. 황현이 아니라, 황현과 같은 호를 가진 梅泉 이왕재(1928~2001)의 글씨였습니다. 현판에 새긴 낙관을 확인하고야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따져 보고 책에 썼어야 했는데, 당연히 그러려니, 짐작만으로 황현의 글씨로 단정했습니다. 제 책을 읽고, 명미당 글씨를 황현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건창의 삶

이제 거기 생가에 살았던 사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영재 이견창(李建昌, 1852~1898)을 만나 봅시다. 정제두에서 비롯된 조선 양명학(강화학)이 뿌리를 내리고 계승된 곳이 강화입니다. 이견창은 강화학과(江華學派)의 주요 인물입니다.

학문이 깊고 문장이 탁월하여 당대부터 명성이 높았습니다. 관료로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자기나 집안의 부귀와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백성을 위해 온 힘 다했던 관료였기에 아름답다고 평합니다.

나이 열 살에 사서삼경을 뗐다는 이견창, 1866년(고종 3)에 불과 15세 나이로 과거에 급제합니다. 조선 통틀어 스무 살 되기 전에 급제한 사람이 30명이고, 그중 최연소 합격자가 이견창이라고 합니다.(《조선의 마지막 문장》) 위낙 어린 급제자라 몇 년 지나서야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사 활동에 주목합니다. 알려지거나, 암행어사로는 박문수가 최고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이견창이 더 훌륭했다고 믿습니다.

1877년(고종 14)에 충청우도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견창 어사는 충청도 관찰사로 근무했던 조병식(趙秉式)의 엄청난 탐학을 찾아내 처벌받게 했습니다. 조병식은 거물 실세였기에 아무리 암행어사라고 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견창은 원칙과 정의만 생각하고 실천했습니다.

멀리 귀양 갔던 조병식이 오래지 않아 풀려났고 관직에 복귀합니다. 이견창에게 해코지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견창이 어사 활동할 때 형벌을 가혹하게 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무고성 고발을 당합니다. 고종은 이견창을 평안도로 유배 보냈다가 몇 개월 뒤에 풀어줍니다. 아무래도 조병식이 뒤에서 움직여 이견창이 벌받게 한 것 같습니다. 이후 이견창은 두 번 더 유배길에 오릅니다.

조병식은 강화유수도 지냈습니다. 선정비(불망비)가 무려 3기나 있습니다. 강화읍 갑곶돈대 마당에 2기가 있고, 삼산면에 1기가 있습니다. ‘유수 겸 진무사 조병식이 백성을 사랑하고 선정을 베푼 것을 기리는 비’ 식으로 새겼습니다. 조병식이 강화에서는 정말 선정을 베푼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견창은 이후 한 번 더 암행어사로 나갑니다. 이번엔 경기도입니다. 구석구석 조그만 섬까지 다 가서 백성의 삶을 살폈습니다. 기근에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내어주고, 세금을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죄지은 이들에 대한 준엄한 처벌!

소문이 났나 봅니다. 지방관마다 어사 이견창을 기억했겠죠. 고종이 탐욕을 부리는 지방관에게 “만약 악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내가 장차 이견창 같은 암행어사를 보낼 것이니, 너는 후회가 없도록 하라!” 경고하곤 했습니다.

기어이 모도까지

영종도 바로 위에 신도, 시도, 모도가 있잖아요. 모도는 강화 동검도의 절반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이견창 어사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사실, 모도까지는 안 가도 누가 뭐랄 사람 없는데, 기어이 가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세금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모도 백성들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이견창 어사 불망비를 세웠습니다. 모도에 가서 이견창 불망비를 보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비석 앞을 오래도록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견창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가 충청우도 암행어사가 되었을 때 조부 충정공이 처음 암행어사가 되어 큰 명성을 세운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의 만분의 일이라도 이룰 수 있기를 바랐다. … 내가 아는 바를 다하여서 백성들에게 이익되는 것을 궁구하여 베풀어 주었다.”

이미 할아버지 이시원도 암행어사로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듯, 본인도 어사로서 힘을 다하여 백성들을 보살피고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견창은 중앙 관직에 있을 때도 백성에게 도움을 주려고 무진장 애썼습니다. 기우는 나라의 앞날을 고뇌했습니다. 그가 살아낸 세월 자체가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병인양요(1866, 15세), 신미양요(1871, 20세), 강화도조약(1876, 25세), 갑신정변(1884, 33세), 을미사변(1895, 44세), 아관파천(1896, 45세), 대한제국 선포(1897, 46세). 그리고 47세 된 189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리웠던 이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안에 막냇동생 이견면(1863~1894)도 있을 겁니다. 견창보다 열 살 넘게 어린 견면은 관직 생활로 바쁜 형님 대신 식구들을 돌보다 32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견창·이견승·이견면, 형제간 우애가 깊었습니다. 출타한 하나가 어둡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둘이 마을 어귀에 나가 하나를 기다리던, 그런 삼형제였습니다. 동생의 죽음에 이견창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미안해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동생이 죽었을 때, 이견창은 눈물로 글을 썼습니다. “함께 전등사에 가지 않았던가? 전등사에서 함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던가? 나는 지금 집에 있는데, 너는 홀로 어디에 갔는가?”

하늘에서 동생을 만났을 테지만, 지금, 이견창은 또 슬플 겁니다. ‘아, 어찌하여 내 살던 집이 송사에 휘말렸는가.’

기고

10월 16일 강화군수 선거...떨거지(?)들의 축제 안된다



이 두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유권자들이 투표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정치 대리인이나 리더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유권자 입장에서만 본 원론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선거는 꽃처럼 향기롭지도 아름답지도 깨끗하지도 순수하지도 예쁘지도 않다. 선거는 오히려 요물(?)에 가깝다. 출마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는 상대를 반드시 꺾꾸러뜨려야만 자신이 당선되는 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출마자들의 뒷무대에서 행해지는 온갖 이전투구는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인 사람이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 출마자들이 벌이는 기가막힌 추태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이다. 선거 출마자들은 상대방은 모두 악이고 자신만이 마치 ‘정의의 사도’요 ‘난세를 구할 영웅’인 것처럼 행세한다. 일시적인 착시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유권자들의 눈에는 가당치도 않는데 말이다. 선거판에서 합리적인 사고나 이성적 작동하지 않는다. 오직 당선만을 꿈꾸는 출마자의 눈은 수시로 먼다. 심지어 간뎡이가 붓다 못해 배박으로 튀어나와 터지기도 한다. 당선 가능성이나 자신의 인지도 등 객관적인 판단력은 제로다. 상황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가 우세하고 어느 후보가 열세라는 등 어느 정도 판세가 그

러지는 데 정작 당사자나 그 측근들은 전혀 판세를 보지도 못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나 할까. 물론 출마자는 ‘내가 꼭 당선된다’는 절대적 확신과 ‘내가 반드시 출마해서 지역의 어려운 난국을 돌파해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이 있으니 출마하는 것일테다. 주변의 부추김이나 권유도 크게 한몫한다. “당신 아니면 안된다” “당신만큼 능력있는 인물이 없다” “당신만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인물이다”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머릿속에는 이미 제멋대로 ‘허황된 청사진’이 그려진다. 이때 출마자는 결심과 동시에 자신만의 심리상태로는 이미 당선되거나 다름없다.

선거는 때로는 출마자 옆에 빌붙어 선거판을 휘젓고 다니는 떨거지(?)들에게 벼락출세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지역에서 빌빌대면서 당선인의 수족이나 가방모찌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지자체의 산하 기관장이나 임원이 되기도 한다.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의 손가락질이나 뒷소문은 전혀 아랑곳않는다. 선거 때만 유권자에게 굽신대며 진짜 간이나 쓸개를 내줄 것처럼 저자세로 굽신대는 척하다 당선되면 유권자들을 발톱의 때만도 취급하지 않는다

떨거지들의 특징은 선거 운동 때부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마치 당선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에 후까시도 잔뜩 들어간다. 마치 자기가 당선돼 자기가 지자체장이 된 것처럼 거들먹거림은 물론이요 자기만이 당선 1등 공신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이라도 되면 그들은 수시로 지역

내 이권 개입은 물론이요 인사 청탁이나 무리한 민원을 집어넣어 공무원들을 괴롭히기도 함은 뻔한 수순이다.

강화군수를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전임 군수가 지난 3월 예기치않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미 10여명이 넘게 아니 20여명의 출마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오늘도 새로운 인물이 강화군수 한 번 해보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언론에 올리고 있다. 호랑이 없는 굴에 늑대들이 설치는 격이라고나 할까.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고 목소리도 한번 못내다가 지역 내 절대자가 사라지니 고개를 뻗뻗이 들고 내가 ‘동물의 왕’ 노릇을 해보겠다는 형국이다. 강화군은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곳이다. 그러기에 국민의힘 쪽에 이미 10명이 넘는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앙의 유력 인사가 내 인맥이다” “지역의 유력한 정치 원로가 내 뒤에 있다”는 식의 확인안된 말들도 저자거리를 누비고 있다.

과연 강화군수를 꿈꾸는 후보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출마를 하는 걸까. 진정한 강화발전과 강화군민을 위하기는 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그릇은 생각지도 않은채 사심 가득한 권력욕과 측근들의 열토당토않는 자리욕심을 채우기 위해선가.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하나 이미 그런 조짐을 보여 우려스럽다.

강화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8월 4일부터이며 후보자 등록은 9월 26일과 27일이다. 공식적으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10월 3일부터 15일 자정까지 펼쳐진다.

기고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2024 강화 청년 직무캠프

‘내 일(JOB)을 알고 내일을 계획하는 강화 청년들의 특별한 1박 2일



고 서 연

2024년 강화 청년 직무 캠프 ‘내일을 잡(JOB)으 시거!’에 참가했던 고서연입니다.(중앙대 4학년) 먼저 1박 2일 강화 청년 직무캠프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대해 고민하던 중 강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캠프 공고를 보게 되었고 2024년 채용 트렌드와 직무에 대해 배우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직무, 자기소개서, 면접 교육이 있었는데 직무에 대해 막연히 생각했던 부분을 직무기술서 등의 자료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실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시장 상황, 평균 연봉, 나이, 근무 시간과 같은 정보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또 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에서는 실질적인 작성 팁과 자신의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1분 PR을 작성하는 데 멘토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제 역량을 끌어내 주셔서

놀랐고, 직무와 면접 준비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직무 캠프 중 가장 좋았던 부분은 둘째 날 진행되었던 모의 면접이었습니다. 실제 인사담당자들과의 모의 면접은 흔치 않은 기회이기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담은 되었지만, 면접을 경험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무 캠프만으로도 좋은 경험이었는데 이음카드(10만원권)와 AI 프로그램 이용권, 수료증까지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았고 이동도 단체 버스를 통해 편하게 할 수 있어 직무캠프를 준비한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2024 강화 청년 직무캠프는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시간이었고,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대신 자신감을 갖게 해 준 기회였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주신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5년에도 좋은 기회가 마련된다면 강화 청년들에게 꼭 참여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책 읽는 강화의 아이들

우리아이가 책읽기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내가면 황청리 멘토의힘 대안교육센터 지도교수 유담



“우리 아이가 책 읽기를 너무 싫어해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책 읽기를 좋아했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책 읽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아이가 다시금 책을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 읽기 싫어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공통된 이야기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이 책 읽기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첫째, 아이가 부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부터 부모의 책 읽기 지도는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책 읽기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자리 잡게 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어렸을 때 이러한 훈련을 하지 못했다면 언제가 자녀들이 신의 은총으로 인해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한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소통의 채널이 열려있다면 좀 늦었어도 책 읽기 지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녀가 책 읽기를 싫어하고 독서 습관을 갖지 못했다면 그것은 부모가 독서 교육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독서교육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독서교육은 첫째, 그 시작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다시금 책을 읽게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매일 규칙적이며 습관적으로 책 읽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이처럼 일찌감치 매일 습관처럼 책 읽기를 시작했다면 지금의 고민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책 읽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 나이부터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부모가 되었다면 자녀들은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책 읽기가 생활 습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 잠시 흔들리는 시간이 있다고 해도 집에서 책 읽는 부모를 보고 자랐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함께 책을 읽자고 하면 거절하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책을 읽지 않고 아이에게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한다면 그런 가정에서는 책 읽는 아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가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 아이가 책 읽기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런 질문이 튀어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넘는 아이에게 책 읽기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다소 강제성이 곁들여진 교육만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함께 책 읽자고 할 경우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부모님이 독서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책 읽기를 좋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일정한 독서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자기 전 30분, 식사 후 30분 등 규칙적인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와 함께 도서관 및 서점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도서관이나 서점을 방문하게 되면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 왜 그 책을 읽고 싶은지 묻고 그 책을 읽고 나면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생각을 물어본 후 구매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오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혼자서 책을 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옆에서 함께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아이가 책을 읽고 나면 함께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아이가 책을 읽은 후 내용을 숙제 검사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대화를 만들어 가되 책 내용에 대하여 아이의 이해력을 높이고, 책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에 나온 이야기를 기반으로 그림을 그리게 한 후 그림에 대한 설명하기, 책 속에 등장한 인물에 대하여 짧은 연극 놀이처럼 역할 흉내 내기 등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가며 책 내용에 대한 질문을 곁들여 가는 방법을 도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학년이라면 책 내용을 주제로 한 토론이나 게임 만들기 등도 아이의 흥미를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칭찬과 보상입니다.

아이가 책을 읽어냈으면 작은 칭찬이나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서 기록을 작성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했을 때 보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상 정도가 되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독서클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은 또래 집단 안에서는 긍정적인 경쟁심이 있고 체면 문화가 존재하기에 독서클럽에 참여하게 되면 지정된 도서를 훌륭하게 읽어냅니다.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공책토론클럽이 이러한 형태에 속합니다. 현재 5학년, 6학년 된 두 명의 남자아이는 저희 모임에 들어가기 전에 혼자서 책을 완독해본 경험이 전혀 없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8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아이들은 그 어떤 책을 주어도 일주일에 한 권씩 훌륭하게 읽어내고 독후감을 작성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책은 혼자 읽는 것이 아닙니다. 책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물론 읽을 때는 혼자 읽지만 읽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없으면 책 읽는 힘이 자라지 못하고 책 읽은 효과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책 읽고 대화하는 가정, 같은 또래나 같은 뜻을 지닌 사람과 함께 책을 읽고 대화하는 문화는 삶의 가치와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강화군,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경기민요반 제19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경연대회 단체부문 대상 수상



대한민국 전통예술 경연대회 공연



대한민국 전통예술 경연대회 대상 수상

지난 6월 29일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경기민요반은 그동안 갖고 닦은 재능을 발휘하여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 단체를 양성하는 경기민요 전수자이며 지도강사인 윤선임 경기소리 연구회장은 국악에 입문하여 27여년간 활동을 하면서 19년째 지역곳곳을 누비며 요양원,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경기민요를 가르치며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늦은 나이에 취미생활로 시작한 소리공부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지켜본 천성 이문주 선생(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전수자)의 권유로 경기민요를 공부하면서 어엿한 국악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내 고향 강화에서 경기민요의 매력을 알리고파 시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기민요반 양성에 최선을 다하여 이번 대상 수상으로 강화군의 위상을 높였으며 지역 문화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강화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요! 풍요로운 강화! 를 건설하는데 으뜸가는 단체가 되기를 바라는 이번 수상자들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경기민요 소리공부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전했다.

- 서정진 기자

제19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경연대회

단체부문 대상 수상 김종숙외 11명
개인부문 최우수상 수상 최순자 최순애 이승임 이계숙

강화군, 저소득 어르신 대상 성인용 보행 보조기 추가 지원

8월 9일까지 접수...각 읍·면 사무소로 방문 신청



강화군, 성인용 보행 보조기 추가 지원

강화군이 오는 8월 9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성인용 보행 보조기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1대당 20만 원가량의 성인용 보행 보조기를 전액 자부담으로 구매해야 해서 큰 부담이었다. 이에 군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 중 장기 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어르

신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성인용 보행 보조기 총 52대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잔여분 70대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신청서, 의사 소견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한 후 각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신체활동이 불편함에도 등급판정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어르신들이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어르신이 살기 좋은 강화군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은면 새마을회, 삼계탕으로 원기 회복하세요!



불은면 새마을회, 삼계탕으로 원기 회복하세요!

강화군 불은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협의회장 김학겸, 부녀회장 채복분)가 지난 9일 관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삼계탕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이틀에 걸쳐 조리한 삼계탕과 두운2리 부녀회장이 기증한 치약,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손수 준비한 김까지 마련돼 더욱 풍성했다.

김학겸 협의회장은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봉사한 보람이 느껴진다”고 말했으며, 채복분 부녀회장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염명희 불은면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써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이웃들이 올여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이·미용 봉사활동 송해면 주민자치원회, 오늘은 멋쟁이 되는 날!



송해면 주민자치원회, 오늘은 멋쟁이 되는 날!

강화군 송해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태중)가 지난 8일 양오1·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활동 ‘멋쟁이 되는 날’ 행사를 가졌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이번에는 두 배 많은 주민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봉사활동은 민나리헤어(서울 은평구) 박서현 원장의 재능기부로 올해 10월까지 매달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중 위원장은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주셔서 뿌듯하다”며, “봉사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주민자치위원과 이장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2024. 7. 22. ~ 2024. 11. 18. 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정부24

주목해주세요!

2024. 7. 22. ~ 2024. 8. 26.까지 정부24앱으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4. 8. 27. ~ 2024. 10. 15.까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다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행정안전부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

2024. 7. 22. ~ 8. 26.까지 정부24앱으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정부24 앱 설치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는 '24.8.27. ~ 10.15. 기간 중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중점조사 대상 : ① 100세 이상 고령자, ② 장기 거주불명자, ③ 복지취약계층, ④ 사망의심자, ⑤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비대면 사실조사 어떻게 참여하나요?

본인의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정부24'에 접속 해 주세요!

- '정부24'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 Google Play 아이폰 - App store
- '정부24' 메인화면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사실조사 참여
- 참여자 정보 확인
- 세대 정보 확인
-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 확인
- 사실조사 완료
- 위치정보 확인 및 자료제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행정안전부

강화군, 유·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1인당 매월 10만 원 범위 내 지원

강화군이 유·청소년의 스포츠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을 견인해 스포츠 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가맹시설의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매월 10만 원 범위에서 연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만5~18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 범죄 피해 가구 내 유·청소년(2006~2019년생)으로,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https://s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수강료는 올해 12월까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을 통해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관내 유·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의 해변!
동막&민머루

마산함 다시 태어난다!
강화함상공원



우주로 한걸음 더 가까이
강화천문과학관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